

는 93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등이 주로 세거하며, 매림동(梅林洞)에는 113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강릉 최씨(江陵崔氏)들이 주로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特徵)

1) 성류사지(聖留寺址)

성류굴이 있는 백연봉(白蓮峯) 밑의 곡금(曲金)이라는 곳에 성류사(聖留寺)가 위치하였으나 폐지되었다. 지금은 농지(農地)로 활용되고 있다.

제3절 산포리(山浦里 : 1·2·3·4里)

1. 마을의 자연환경

1) 산포1리(島村)

동쪽 산봉우리에 망양정(望洋亭)이 우뚝 솟아있고, 동해가 있다. 서쪽은 노음1리가 있고, 남쪽은 장평들이 있으며 건너편에 노음 3리가 있다. 그리고 북쪽은 왕피천을 건너 수산리가 있다.

2) 산포 2·3·4리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성류굴을 간직한 백연봉(白蓮峯) 지맥(支脈)이 동으로 뻗어 마을 뒷산을 이루고 있다. 남쪽은 진북리와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왕피천 건너에 수산리(鹽田)가 있고 울진읍이 바라보인다.

산포리에는 울진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망양정해수욕장이 발달하여 주변에는 횃집 등 식당촌이 조성되어 있다. 또 펜션과 민박 등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며 최근 왕피천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옛날 왕피천 하구(河口)에 모래가 쌓이기 전에는 1,000m 이상(以上) 포구(浦口)로 되어 있어 배가 왕래(往來)하였다 하여 산포리(山浦里)라 하였다. 산포1리의 마을회관은 1960년

에, 2리의 마을회관은 2013년에, 3리는 2005년에, 4리는 2004년에 신·증축되었다.

1) 가는개(2里)

1650년경에 달성 서씨(達城徐氏)가 개척하여 살면서 해안의 경치가 아름다워 주리개(住里介)라 하였고, 1912년부터 가는개(細浦)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해안선에 가는 모래밭이 길게 펼쳐져 있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또 이 마을에는 호암(狐岩) 화수독(火水독)이 있고, 자연부락인 월증리(月增里)가 있다. 호암(狐岩)으로 부르는 여우가 살던 동굴(洞窟) 바위가 있다. 또 ‘화수독[간물단지]’ 전설이 전한다. 1750년경에 가는개[산포2리]에 큰 화재(火災)가 발생하여 마을이 전소(全燒)되면서 마을 앞산에 독을 두 개 묻어 놓고, 매년 음력 2월 1일에 물을 이 독에 채워 두었는데 독의 물이 많이 줄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 하여 주의하고, 적게 줄면 재해(災害)가 없다고 전해진다.

2) 검은개(3里)

1600년경에 홍천 용씨(洪川龍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하며, 별감(別監)을 지낸 장(蔣)선비라는 사람이 목동(牧童)을 데리고 와서 이곳의 경치 좋은 바위 밑에서 거문고를 연주하였다 하여 금호(琴湖)라 하였고, 그 후 화재(火災)가 발생하여 마을이 전소(全燒)되어 검게 보이므로 흑포(黑浦)라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망지등(望知登), 목동바위(牧童岩)가 있다. 망지등(望知登)은 바닷속의 고기떼를 찾기 위하여 망(望)보던 산봉우리를 일컫는다.

목동바위(牧童岩)는 1700년경에 별감(別監)을 지낸 장(蔣)선비가 목동(牧童)과 함께 이 바위 밑에서 시(詩)를 읊으며 풍류(風流)를 즐겨 이 바위에 새겨놓은 “梨谷春風 琴湖秋月”라는 시구(詩句)가 남아있었으나 해안도로 개설 과정에서 훼손되었다. 촛대바위는 홀로 솟은 바위 꼭대기에 소나무가 솟아 마치 촛대와 같은 모양의 바위라고 하여 이후부터 ‘촛대바위’라 이름하였는데 오늘날 관광명소로 이름 높다. 장자못 전설 유형으로 이 마을에서 전해오는 ‘황부자가 망한 사연’ 전설의 현장이다.

3) 도촌(島村)(1里)

1870년경에 청풍 김씨(淸風金氏)가 개척하여 도촌(島村)이라 불렀다. 이는 왕피천이 마을 서쪽으로 흘러 섬처럼 되어 있다 하여 도촌(島村)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수로(水路)가 마을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4) 망양동(望洋洞)(4里)

망양동은 둔산(屯山)과 망양(望洋)의 2개 마을로 형성되어있다. 둔산은 1530년경에 평창

이씨(平昌李氏)가 개척하여 살면서 산밑에 모여 산다고 하여 둔산(屯山)이라 하였다. 또는 버리둔산, 보릿둔산이라 함은 보리농사가 잘 되어 보릿가루를 쌓아 둔 것이 작은 산(山)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50년경에는 염전(鹽田)이 성행했다.

망양(望洋)마을은 1590년경에 김해 김씨(金海金氏), 평창 이씨(平昌李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세 성씨가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이 마을을 휘라둔산(輝羅屯山), 후릿둔산(屯山)으로 부르는 것은 후릿그물로 고기를 잡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동해의 아침 햇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 보이는 데서 부르는 이름으로 전한다. 1849년(철종 9)에 망양정(望洋亭)이 이곳으로 이축(移築)된 후에 망양동(望洋洞)으로 개칭(改稱)되었다.

3. 가구 분포

산포리에는 326세대가 거주하며 산포1리인 도촌(島村)은 118세대가 거주한다. 또 2리인 가는개, 월증에는 72세대가, 3리인 검은개에는 83세대, 4리인 망양, 둔산동에는 53세대가 살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망양정(望洋亭)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의 뒷산 정상부에 있다. 망양정은 관동팔경의 하나로, 기성면 망양리 해안에 처음 세워졌으나 1471년(성종 2)에 평해군수 채신보가 현종산 기슭에 옮겨놓았다. 1518년(중종 13)에 안렴사(按廉使) 윤희인(尹希人)이 울진군수 김세우(金世瑀)와 협의하여 중수하였다. 그 후 1590년(선조 23)에 평해군수 고경조(高敬祖)가 중수하였으며, 1690년(숙종 16) 숙종이 안원군(眼原君)에 편액(偏額)을 보내어 게판(揭板)하였다. 1854년(철종 5) 울진 현령 신재원(申在元)과 군승(郡承) 남치봉(南致鵬)이 망양정을 이축(移築)할 것을 의논한 뒤 향회(鄉會)에 제안하여 둔산 해안봉을 이축 장소로 정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다가, 1860년(철종 11) 울진 현령 이희호(李熙虎)가 군승(郡承) 임학영(林鶴英)과 함께 근남면 산포리 둔산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망양정이 오래되어 퇴폐된 것을 1957년에 울진군 및 경상북도 울진교육청의 주선으로 보조금과 함께 김용식(金容湜)·장성업(張聖業)·박승갑(朴承甲) 등으로부터 목재를 기증받아 보수에 착수하였으며, 근남면 최중길(崔重吉)의 설계로 1958년에 낙성되었다. 또한, 1979년에 보수 정화를 하였고, 1995년에 정자가 15도쯤 기울어진 것을 도·군비 보조로 기둥 및 부식된 부분을 교체하였다. 이후 경북 북부권 문화관광개발 사업의 하나로 2005년 완전 해체하고 신·개축하였다.

2) 망양정해수욕장

산포 2·3·4리는 동해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장이 형성되어있고 특히 망양정해수욕장은 옆으로 왕피천이 흘러 바다로 유입(流入)되고 있으며,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이 뒤에 있어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다.

제4절 수곡리(水谷里 : 1·2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왕피천 건너 성류굴이 있고 서쪽은 통고산맥(通古山脈)이 동쪽으로 뻗어 한티재(寒汰嶺)를 이루고 있다. 남쪽에는 구산리(九山里)가 있고 북쪽은 한티재의 지맥(支脈)이 마을 뒤를 둘러싸고 있으며 산 너머에는 행곡리가 있다. 마을회관은 2016년에 개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격암 남사고 선생을 배향하는 자동서원과 격암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1) 누금[累金 : 수곡 1리]

1580년경에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는데 뒷산의 암벽이 황금색이고, 또 황금(黃金)이 많이 쌓이는 마을이 되어 달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또는 설운촌(雪雲村)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이 냇가에 있어 구름이 많이 끼고 서리가 일찍 내려 곡식이 잘 익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2) 두전(斗前)

1850년경에 울진 임씨(蔚珍林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는데, 마을 앞산 위로 바라보이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이 언제나 마을을 비추고 지켜준다는 뜻으로 두전(斗前)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3) 막금[幕金 : 수곡 2리]

1600년경에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산과 흐르는 강물이 비단으로 둘러놓은 듯이 아름다우므로 막금(幕錦)이라 하였다 한다.